

# 송정역 '광주다운' 시설로 재탄생

### 건축·시설물에 광주 특색 가미, 공연·홍보시설 마련 1,600면 규모 주차빌딩 신축·신규도로 개설도 추진

광주의 관문인 광주 송정역이 공연과 홍보시설을 갖추고 광주만의 고유함과 독특함을 느낄 수 있는 공간으로 재탄생한다.

광주시는 7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광주 송정역 일대 '지역경제 거점형 고속철도(KTX) 투자선도지구' 개발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낯은 이미지의 송정역을 개발하고 인

근 부지에 산업시설·연구용지·주거단지·상업용지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지역의 특색을 전혀 알 수 없다는 지적을 받는 송정역 건축물에는 광주만의 고유한 특색을 가질 수 있도록 조형미를 가미할 계획이다.

주차건물·환승 통로·택시 대기 공간 등은 광주만의 특색을 담은 시설로 조성한다.

역 광장에는 문화행사가 열릴 수 있는 전용 공간을 마련한다.

역 내부에는 광주를 알리는 갤러리와 홍보관도 설치할 방침이다.

올해 여름 열리는 광주수영대회 이전에 안내소를 새롭게 설치, 국내외 방문객에게 광주를 알리고 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다.

주차시설을 확충하고 도로를 개설해 교통편의도 크게 개선한다.

시는 송정역 1주차장 부지에 6층 1,600면 규모의 주차빌딩을 신축할 계획이다.

현재 실시계획 중이며 내년 3월 착공해 2021년 6월 준공 예정이다.

현재 송정역은 하루 평균 1만7,000명, 휴일 2만4,000명이 이용하고 있지만, 주차장은 608면 수용 규모에 불과하다.

극심한 교통혼잡 구간인 송정역 주변 신덕마을~송정 지하차도 구간에 2021년까지 후면도로(2차로)를 개설한다.

신덕지하차도~송정교 구간에는 4~6차로의 신규도로를 개설해 교통량을 분산할 방침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호남의 관문으로서 위상에 걸맞게 송정역을 광주만의 고유함과 독특함을 느낄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황애란 기자



**유달산 봄 축제** 김영록 전라남도지사, 김중식 목포시장 등 참석자들이 6일 오전 목포 유달산 노적봉앞 광장에서 열린 낭만항구 목포 '2019 유달산 봄 축제'에서 유달산 꽃길을 걷고 있다. /전남도 제공

# 광산 공기청정·완도 해양치유산업 '탄력'

### 균형위 시범사업 선정 3년간 국비 100억 지원

광주 광산구의 '공기정화기술개발 및 경제생활 SOC 구축'과 완도군의 '해양치유 블루존 조성사업'이 각각 정부 지역발전투자협약 시범사업에 선정됐다.

7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지역 주도 대표적 균형발전정책인 '2019년 지역발전투자협약 시범사업' 대상지로 광주 광산구와 완도군 등 전국 11곳을 뽑았다.

이번 시범사업에 선정된 광주 광산구는 미세먼지 검출 및 저감을 위한 신기술 개발, 신시장 창출 및 경제생활

SOC 구축을 통해 지역민의 삶의 질 제고를 도모한다. 산업부를 중심으로 환경부, 중기부, 과기부가 협업을 통해 지원한다.

전남에서는 유일하게 시범사업에 포함된 완도 '해양치유 블루존 조성사업'은 지역 해양자원을 건강 자원화해 그 활용성을 증대시키는 지역특화 전략사업이다. 해양바이오단지과 해양치유 스마트플랫폼 기반을 조성하고, 정밀의료 해양기후치유 콘텐츠 개발·해양치유자원 실용화 연구개발·지역 역량 강화 및 주민건강 증진사업도 추진한다.

지역 일자리·소득 창출·낙후 어촌 지역 균형 발전 모델로 주목받고 있으며, 시범사업 선정으로 완도가 해양치유산업 메카로 발돋움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된 것으로 전남도는 평가했다.

앞으로 3년간 모두 100억원의 국비를 지원받으며 지방비를 포함한 총사업비는 200억원 규모로 오는 6월까지 사업을 착수한다.

균형위 지역발전투자협약은 기초자치단체에서 각 지역이 필요로 하는 다부처·다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한 후 중앙정부와 협약을 맺어 사업 기간 예산을 안정적으로 지원받는 정책이다.

올해 첫 도입 됐으며 이번 시범사업을 거쳐 2020년부터 정식사업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정근산 기자

# 일본 크루즈 관광객 1천명 9일 여수 입항

### 전남 출입국 심사 단축 등 만족도 제고

일본 크루즈선사의 3만급 유람선 '오션드림호'가 일본 고베항에서 관광객과 승무원 등 1,000여 명을 싣고 오는 9일 여수에 입항한다.

7일 전남도에 따르면 오션드림호 관광객들은 여수·순천 등 인근 주요 관광지를 6개 코스로 나눠 기항지 관광에 나선다.

주요 관광지는 여수 오동도와 아쿠아플라넷, 순천만국가정원, 낙안읍성 등으로 당일 여행을 마친 후 다음 기항지로 떠난다.

오션드림호 이후에도 오는 5·6월 14만급 대형 크루즈 2척이 여수를 찾기로 하는 등 올해 여수를 통해 전남을 방문하는 해외 크루즈 관광객이 2만여 명에 이를 전망이다.

전남도는 해외 크루즈 노선 다변화와 일본·타이완 등 국가별 맞춤형 마

케팅 전략 추진, 전남 크루즈 협의회 운영 등이 성과를 거둔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법무부 등 CIQ(세관·출입국·검역) 기관의 협조를 얻어 출입국 심사 시간을 단축해 관광객 만족도를 높인 점도 크루즈 유치에 큰 몫을 한 것으로 분석했다.

크루즈 승선 외국인의 경우 국내 체류 비자 없이 3일 동안 머무를 수 있는 관광상륙허가 사전 신청, 입국 심사대확충, 출입국 심사 직원 임시 파견 등의 시책도 도입했다.

김명신 전남도 관광과장은 "외국 선사와 여행사를 대상으로 해외 포트제일 활동 등에도 적극적으로 참가해 일본·타이완·중국에서 여수를 오가는 정기항로를 추가 개설하겠다"고 말했다. /정근산 기자

# 9월 순천서 균형발전 박람회 '혁신적 포용국가' 주제

산업통상자원부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7일 "9월 25~27일 순천시 순천만국가정원에서 '2019 대한민국 균형발전 박람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균형발전 박람회는 2004년부터 해마다 열리는 국내 최대 규모의 지역박람회로, 지역발전 성공사례를 공유하는 장이다. 올해는 '혁신적 포용국가의 구현'이라는 주제로 열린다.

그동안 박람회는 대형 전시관을 보유한 대도시 중심으로 개최됐으나 이번에 처음으로 지자체 대상으로 공모한 결과 8곳 가운데 순천시가 선정됐다.

순천시는 적극적인 지역주민 참여를 통해 순천만국가정원이라는 혁신사례를 만들어낸 지방 강소도시로 꼽힌다.

산업부와 균형위는 "예년과 달리 올해는 자연·생태·정원 등을 활용한 색다른 균형발전 박람회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정근산 기자

# "영산강 하굿둑 해수유통 수질개선 효과"

### 우승희 도의원, 영산강환경청 연구용역 결과 공개 염수피해·약취 등 영산강하구협의회체 구성 촉구

영산강 하구의 해수유통이 수질 개선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공식 확인돼 하굿둑을 부분 개방해야 한다는 주장에도 힘이 실리게 됐다.

전남도의회 우승희(더불어민주당·영암1) 의원은 지난 5일 열린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영산강유역환경청의 '영산강 하구 수질 및 수생태계 개선 조사·연구용역' 결과, 해수유통이 수질개선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고, 경제성 분석에서도 배수갑문을 상시 개방하는 방안이 효과가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고 주장했다.

연구용역은 지난 2017년 7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이뤄졌다.

우 의원이 입수한 용역결과에 따르면 해수유통 용역 시나리오별 하구의 반응을 분석한 결과, 배수갑문을 상시적으로 개방하는 안이 염수 유입거리가 가장 짧으면서도 수질 개선의 효과가 큰 것으로 확인됐다.

해수유통의 경제성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배수갑문을 상시적으로 개방해 해수를 유통하는 안이 가장 경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동시에 해수유통시 염수 유입에 따른 피해 가능성도 제기됐다.

염수가 하굿둑으로부터 33km에서 최대 48km까지 유입되는 것으로 예측돼 수자원 및 수산자원



피해를 초래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영산호에 저층 저산소층이 있다는 기존 연구 결과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들도 확인됐다. 영산호에서 저산소층이 매년 여름철을 중심으로 주기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산소가 없어지면 미생물로 인한 가스 발생과 약취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우 의원은 "이번 용역은 해수유통시 나타날 문제점과 피해를 예측하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했다는 점에서 큰 성과"라며 "해수유통에 따른 농업용수 확보 방안, 지하수 염수 피해 지점 추정과 대책 등 향후 세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우 의원은 특히 "새롭게 제기된 영산호의 악취 발생 가능성에 대한 모니터링과 하구의 체계적 보전 관리를 위한 영산강 하구 연구센터 구축이 필요하다"며 "낙동강하구 관리협의회와 같이 영산강 하구 이해관계자가 모인 영산강하구협의회를 구성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안했다. /정근산 기자

# 광주시 소상공인 지킴이 출범

광주시는 지난 5일 시청에서 '빛고을 소상공인 지킴이 발대식'을 개최했다.

지역 청년 10명으로 구성된 소상공인 지킴이는 다양한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안내하고 필요할 때 접수를 대행한다.

시는 지난 3월 모집 공고, 서류 및 면접 심사를 거쳐 소상공인 지킴이를 선발하고 역량 강화 교육, 친절 서비스 교육, 모의 실습 등 현장 준비 활동을 했다.

지역별로 2명씩 팀을 구성하고 11월까지 소상공인 업소를 돌며 지원정책 홍보, 애로사항 청취 등 지원기관과 소상공인 간 가교역할을 하게 된다.

지킴이의 도움이 필요한 업소는 전화(062-960-2638)로 신청하거나, '빛고을 소상공인 지킴이'를 검색해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 연락처와 업소명을 남기면 된다.

**(주) 백양실업 의뢰기관 세탁물 전문처리업체!**

호남 최대 최첨단 세탁시설 완비, 위생관리 철저히 하며  
정직과 신용을 바탕으로 품질에 최선을 다하여  
친환경 세탁문화를 위해 연구와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운반차량 고온소독 살균

◆ 운반 카트 고온소독 살균

◆ 청결 세탁물 탑재

**(주) 백양실업**  
전라남도 장성군 황룡면 신기길 93 TEL. (061) 392-7900